

대성호 실종자 수색·사고원인 규명 '난항'

사고 몇새째 밤낮 없는 수색에도 실종자 발견 못해 선미에 발화 흔적 없어 선수 찾아야 원인 규명 가능

제주 해상에서 불이 나 침몰한 통영 선적 대성호(29t급)의 실종자를 찾기 위한 구조당국의 수색이 장기화하고 있다. 또 대성호 화재 원인 규명도 난항을 겪고 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사고당일인 지난 19일부터 24일까지 몇새간 밤낮 없이 수색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24일 밝혔다.

해경은 전날 오후 6시부터는 조망탄 120여발을 투하하며 야간 수색을 벌였고 날이 밝은 뒤에도 경비함정을 비롯한 민간 어선과 항공기 등을 투입해 해상·수중·공중·육상에서 실종자 수색을 이어갔지만 실종자를 찾지 못했다.

사고 당시 대성호에는 모두 12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중 19일 수습한 사망자 김모(60·경남 사천)씨를 제외한 나머지 11명의 생사가 몇새째 확인되지 않고 있다. 앞선데 달린 것으로 24일 오후부터는 제주 전 해상에서 풍랑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기상 상황마저 악화돼 해경은 야간 수색을 대형 함정 위주로 진행하기로 했다.

화재 원인 규명에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해경은 지난 23일 인양을 완료한 대성호 선미(선박 뒷부분)에 대한

현장 감식을 실시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항에서 해경,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제주소방안전본부,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이 진행한 1차 합동 감식에서는 '대성호 화재가 선미보다 앞쪽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제시됐다. 선미에서는 발화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선체 그늘을 형태를 확인한 결과 대성호 선체 앞쪽에서 불이 난 뒤 선

미 쪽으로 진행된 것으로 추정됐다. 아울러 선미에 있는 보관창고와 유류 탱크, 선원 침실 등에 대한 수색에서도 실종 추정 선원의 생체 조직이나 선원 관련 물품이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정확한 화재 원인은 대성호 선수(선체 앞부분)를 찾은 뒤에야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성호 선수는 불이 난 뒤 바다 속으로 가라앉아 현재 어디에 있는 지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 사고 해역의 수심은 약 80m로, 해경은 해군 기뢰탐색함 2척과 국립해양조사원 해양조사선 바다로 5호 등을 투입해 수중 탐색을 실시하고 있지

만 선수 위치를 파악하지 못했다. 해경 관계자는 "해군 무인 잠수정(ROV)을 동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이른 시일 내 이 장비를 투입하는 것은 힘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해군 무인 잠수정 3대 중 1대는 독도 해상에 추락한 소방헬기를 찾는 데 투입돼 있고 나머지는 정비 또는 수리를 받고 있다"면서 "따라서 정비·수리가 끝나야 대성호 선수와 실종자 수색에 투입할 수 있는데 이 작업이 언제 끝날지는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상민·이태윤기자 hasm@halla.com



합동감식반이 23일 화순항으로 옮겨진 대성호 선미 부분을 감식하고 있다.

이상민기자

표류 어선 긴급구조

제주 해상에서 표류 중이던 어선이 남해어업관리단에 의해 구조됐다.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지난 22일 오전 1시20분쯤 제주 차귀도 인근 해상에서 표류하고 있던 통영선적 근해통발어선 U호(81t, 승선원 11명)를 안전하게 구조했다고 22일 밝혔다.

남해어업관리단에 따르면 차귀도 남서쪽 약 135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U호로부터 조업중 스크류에 그물이 감겨 운항이 불가능하게 됐다. 구조요청이 들어오자 국가어업지도선을 현장으로 급파해 U호 승선원 11명의 안전을 확인한 후, 화순항으로 구조·에인을 완료했다.

김현석기자 ik012@halla.com

국가 인정 '4·3희생자·유족' 8만명 돌파

22일 제24차 중앙위원회서 8546명 의결 2002년 첫 시작으로 올해까지 8만7287명

국가가 인정한 제주4·3 희생자·유족이 8만명을 넘어섰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는 22일 제24차 제주4·3중앙위원회에서 8546명(희생자 79명·유족 8467명)을 심의·의결했다.

희생자 79명 가운데 사망자는 57명, 행방불명자 10명, 수형자 12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12명의 수형자 중 3명은 생

존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송석진(93) 할아버지는 4·3 당시 군사재판을 받고 전주형무소에서 1년을 복역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지난 10월 22일에는 '제2차 4·3수형희생자 불법 군사재판 재심청구'에 나선 상황이다. 고모씨의 경우에는 군사재판에서 무기형을 선고 받은 뒤 형무소 이송 과정에서 탈출해 평생을 숨어 살았고, 박모씨는 일반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앞서 제주도는 2018년 한 해 동안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기간을 운영, 총 2만1392명의 신청을 받았다. 이중 1만3637명(희생자 209명·유족 1만3428명)이 추가로 희생자·유족으로 인정 받았고, 7775명은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미결정된 7775명에 대해서도 조기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2년 11월 20일 처음 시작된 제주4·3중앙위원회에서 희생자나 유족으로 결정된 수는 8만7287명(희생자 1만4442명·유족 7만2845명)이다.

송은범기자

"미국 책임 인정, 장기적 계획 필요"

제9회 제주 4·3평화포럼 4·3-미국·UN 관계 발표 "4·3단체 미주 결성 계획"

제주4·3에 대한 미국의 역할과 책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계획과 주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내년에 미주 제주4·3관련 단체가 출범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는 결의도 있었다.

이같은 의견과 결의는 지난 21-23일 제주KAL호텔과 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9회 제주4·3평화포럼에서 나왔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이 주최한 이번 포럼은 '제주 4·3과 유엔, 그리고 미국'이라는 주제로 4·3과 UN,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 국내외 각계 전문가 18명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첫째 날인 21일 오후 5시부터 있던 기조강연에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주진오 관장은 4·3에 있어서 미국의 책임 문제는 "가장 미국적인 방식"으로 의회와 언론을 파고 들어가 궁극적으로 미국 정부와 시민사회가 인정"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나아가 진정한 제주4·3의 역사화, 세계화를 위해서는 한국 뿐 아니라 세계

인들을 대상으로 4·3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역사교육을 시도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내외 NGO들, 해외대학의 한국학과들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4·3 바로 알리기를 수행해 가야 함을 강조했다.

22일 오후 1시부터 마련된 제2세션, 'UN과 미국, 그리고 제주'에서는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교 한국학과 교수인 제임스 퍼슨, 연세대학교 박명림, 조선대학교 기광서 교수의 발표를 통해 제주4·3에 한반도와 미국과의 관계를 조명했다.

특히 센트럴 미시간대 정치철학과 호프 메이 교수는 제주4·3 당시 유엔임시한국위원단이 상당한 폭력과 경찰의 고문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제주도에 "합당한 정도의 자유가 존재"했다고 보고한 사실을 지적했다.

오후 5시부터 열린 제3세션에서 재미제주도민회 이한진 대표와 재미 칼럼니스트 양영준씨(현의사)는 미주4·3단체 결성에 대한 토론을 가진 뒤 "미국에서의 4·3운동이 쉽지 않은 길이지만, 꾸준히, 또 열심히 하고자 한다"는 다짐을 밝혀 자리에 참석한 청중들로부터 박수를 받기도 했다.

조성윤기자

오라교차로서 차량 충돌 3명 사상

24일 오전 1시32분쯤 제주시 오라2동 오라교차로 서쪽 도로에서 김모(36)씨가 운전하는 승용차와 고모(22)씨가 몰던 승용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김씨가 크게 다쳐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고씨의 고씨의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박모(23)씨가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또 이 사고로 김씨가 몰던 승용차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32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주보고 달리던 두 차량끼리 정면 충돌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며 "중앙선 침범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선홍2리부녀회 "이장 해임 마을이장 "허위사실 배포"

선홍2리 부녀회는 지난 2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을이장이 주민들 몰래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와 독단적으로 체결한 협약서를 인정할 수 없다"며 "마을의 행정을 마비시키고 있는 마을이장 해임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마을이장은 70대 노인을

사무장으로 앉혀 놓고 사무실에 나타나지 않는 등 리행정은 마비상태에 있다"며 "마을이장을 해임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불상사는 주민들의 압도적인 결의를 무시한 조천읍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선홍2리 마을이장은 부녀회 기자회견과 관련 입장문을 내고 "선홍 2리 이장 및 리사무소 직원은 매일 리사무소에서 마을 행정 업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배포하는 것은 진실을 왜곡시키는 행태"라고 해명했다.

김현석기자

www.토종흑염소목장.com / www.blackgoat.1939.co.kr

제주 편백 숲

최대 편백 숲

흑염소 체험농장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흑염소 체험농장과 힐링이 있는 곳!

▲ 흑염소 먹이물이기 (시간마다 진행)

▲ 흑염소 놀이터 (흑염소는 본능적으로 높은곳에 올라가는 것을 좋아함) 현재 3000두 이상 사육

흑염소 대공연 (매 시간마다)

SNS 래그 매월 추천 50만원 상당 경품 (사은품증정)

피톤치드(자연항균물질)가 뿜어져 나오는 편백숲에서 산책하시면서 힐링과 건강도 챙기세요

▲ 편백숲길

오픈기념으로 편백수를 드립니다

토종 흑염소 요리 전문점

흑염소 마루

가마솥에서 진하게 우려낸 흑염소 진국을 드시고 온 가족이 면역력도 함께 키워보세요

메뉴

흑염소탕 / 전골

수육 / 육회

숯불구이 / 떡갈비

노린내 나지 않는 염소고기 식당 납품 가능

흑염소 마루 / 예약문의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663번길 1-1

T. 064.805.5099
T. 064.764.6678

흑염소 진액 주문받습니다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산 14번지